

LG화학, 글로벌 車접착제 기업 인수... 8.4조 시장 공략

(2023년 접착제 시장)



미국 유니실社 지분 100% 인수
북미 타깃... 작년 매출 630억
차량 경량화 추세에 성장 유망
사업 본격화... 中·유럽 등 확장



LG화학 여수 NCC공장 전경.

/LG화학

LG화학이 자동차 경량화 핵심 소재인 '자동차용 접착제' 사업에 진출한다.

LG화학은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 업체인 미국 유니실(Uniseal)사의 지분 100%를 유니실 모회사인 쿡엔터프라이즈(Koch Enterprises)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용 접착제는 차체를 조립할 때 기존 나사나 용접이 하는 기능을 보완·대체해 차량 경량화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차량 경량

화 추세에 따라 시장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니실은 1960년에 설립된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 업체다. 접착제 전문 평가자인 ASI(Adhesives & Sealants Industry)가 2018년 올해의 접착제 기업 Top25로 선정하기도 한 강소업체이기도 하다. 본사와 생산 시설은 미국 인디애나 주에 위치해 있다. GM, Ford 등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지난해 약 63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유니실 인수로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사의 원재료 기술력을 더해 '고기능 접착 재료' 분야도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자동차전지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글로벌 고객망을 활용해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인 자동차용 접착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럽, 중국 등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1000억원을 기록, 오는 2020년에는 6조5000억원, 2023년에는 8조4000억원까지 연간 약 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자동차용 접착제는 차량 경량화 추세로 성장세가 높은 유망 소재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SK인포섹 "AI 보안관제 고도화 추진"

머신러닝 도입 등 중장기 전략 수립
"사람·프로세스·기술 고도화할 것"

전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SK인포섹이 본격적인 AI 보안관제 시대를 연다.

SK인포섹 채영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의 유수의 보안기업들 대부분이 네트워크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위와 공격행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머신러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SK인포섹은 AI 보안관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관제는 기업의 각종 보안시스템에서 탐지한 이상징후를 한 곳으로 수집해 공격 여부를 가려내고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SK인포섹은 국내외 2000여 곳, 8000대 이상의 보안시스템에서 탐지한 이상징후를 보안관제시스템인 '시큐디움'으로 수집해 공격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SK인포섹 보안관제센터에서 하루에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상징후와 보안로그만 최소 10억건 이상에 달한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



SK인포섹 채영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용되는 경우는 크게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 악성 행위 탐지 및 차단 ▲제로데이 등 신규 악성코드 분석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등이다.

SK인포섹은 보유하고 있는 위협 정보, 소속 보안 전문가의 분석 논리, 글로벌 보안기업과 공유하는 인텔리전스 등 양질의 정보를 학습하는 머신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채 센터장은 "머신러닝 적용 이전에는 탐지 결과를 재차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됐는데 머신러닝을 적용한 후에는 이 같은 일이 70%나 줄었다"고 말했다.

SK인포섹은 작년 초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며 연구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 보안관제를 구성하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의 세가지 요소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인포섹 도지현 전략사업부장은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협 분석 효율을 높이고, 관제 범위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물리 영역까지 넘나드는 복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와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보안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 러 연해주 주정부와 스마트시티 만든다

에너지·보안·교통 등 협력 업무협약

KT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 주정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경영기획부문장 구현모 사장, 러시아 연해주 안드레이 타라센코 주지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KT와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는 에너지·보안·교통·안전·스마트팜 등 KT의 스마트 시티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합의됐다. 업무협약 체결 후 스마트 시티 전담반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추진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KT는 다년간의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연해주에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연해주 정부와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 및 도시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한다. 연해주 주정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KT 경영기획부문장 구현모(왼쪽) 사장, 러시아 연해주 안드레이 타라센코(Andrey Tarasenko) 주지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T

KT 경영기획부문장 구현모 사장은 "KT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험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해주 정부와 지속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장 ICT 실크로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정부 주지사는 "동방경제포럼이 갖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KT의 미래 ICT 신기술을 도시 환경 발전에 접목시키기를 기대한다"면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 활성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제조사 기지국 달라도 그룹통신 OK

KT 그룹통신 기술 시연 첫 성공
재난안전통신망 품질 향상 기대

KT가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그룹통신을 하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기지국 장비 사이에서 진행됐다. 서로 다른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지국 환경에서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가 정의한 Rel.13eMBMS 기반 그룹통신(GCSE) 기술 시연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중동시동영상전송(eMBMS)에 기반해 특정 지역 내 다수의 사람에게 그룹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만명 구조요원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수색이나 화재 진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 eMBMS 기반의 GCSE 기술



KT가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에서도 대규모 사용자의 그룹통신이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시연에 성공했다. /KT

은 장비 제조사별로 핵심 기능 구현 방법이 다르고 호환이 되지 않아 단일 제조사 장비로만 콘텐츠 전송이 가능했다. 지역별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이 구축될 경우 제조사 수 만큼 코어장비가 필요했다.

이번 시연이 성공하면서 앞으로는 기지국 장비의 제조사가 달라도 하나의 코

어장비로 모든 기지국에서 그룹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비용 절감과 구축 시간 및 운용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발생으로 통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그룹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철도 통합무선망(LTE-R),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KT 네트워크부문 INS본부장 김영식 전무는 "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의 핵심 솔루션인 eMBMS 기반 그룹통신 기술을 삼성전자, 노키아와 협력해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을 끝마쳤다"면서 "KT는 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수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외 제조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윤선생 사업총괄 윤수 상무와 SK텔레콤 박명순 AI사업유닛장 등 양사 관계자는 12일 서울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사옥에서 '누구(NUGU)' 활용 '윤선생 스피커북(Yoon's Speak-A-Book)' 서비스 출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선생

'AI 스피커 누구', 영어선생님으로 변신

SKT-윤선생 AI 영어서비스 MOU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어 학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윤선생 사업총괄 윤수 상무와 SK텔레콤 박명순 AI사업유닛장 등 양사 관계자는 12일 서울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사옥에서 '누구(NUGU)' 활용 '윤선생 스피커북(Yoon's Speak-A-Book)' 서비스 출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선생 스피커북은 7~9세 아동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 및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윤선생이 자사의 영어교육 콘텐츠를 SK텔레콤의 AI스피커 '누구(NUGU)'와 결합해 선보이는 신규 영어학습 서비스다. 스피커북 서비스는 누구 디바이스뿐 아니라 'T맵(T map) x NUGU'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윤선생 측은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